

# “9회가 무서워”… 너도나도 뒷문 비상

마무리 투수 부진에 부상 겹쳐  
막판에 승부 뒤집히기 다반사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탄식  
하루 5경기 모두 1점 차 진기록  
2015년 8월15일 이어 두 번째

은 2015년 8월15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특별 마무리 투수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 LG 트윈스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1패, 11세이브, 평균자책점 0.75를 기록한 마무리 투수 유영찬이 오른쪽 팔꿈치 피로 골절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뒷문이 뚫렸다.

유영찬은 수술받을 예정이고, LG는 반자리를 매우기 위해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고우석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 베어스도 지난 시즌 24세이브, 올 시즌 3세이브 평균자책점 0.87을 기록한 김택연을 25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아개 염좌 증세를 겪는 김택연은 5월 말 이후에나 합류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한화 이글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시즌 33세이브를 올렸던 마무리 투수 김서현은 구위 저하와 제구력 난조 속에 올 시즌 11경기 1승 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9.00을 기록한 뒤 27일 엔트리 말소됐다.

한화는 14일 삼성 라이온즈와 홈 경기에서 김서현 등이 심각한 제구 문제를 드러내면서 프로야구 역대 한 경기 팀 최다인 18개의 4사구를 허용하기도 했다. 결국 한화는 대체 외국인 투수 잭 쿠싱을 마무리로 돌리는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다.

작년 27세이브를 기록한 KIA 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 역시 시즌 초반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6.88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갔다가 최근 1군에

구단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
선수	유영찬	김원중	정해영	김택연	김서현
원인	우측 팔꿈치 피로골절, 수술로 시즌 아웃	초반 난조로 마무리 보직에서 물러났다	시즌 초반 부진, 2군 이동 후 복귀	아개 염좌	구위 저하-제구력 난조
현재상황	집단 마무리-대체 투수 영입 추진	28일 키움 히어로즈전서 시즌 첫 세이브 달성	1군 복귀 후 회복 중	5월 말 이후 합류 가능	외국인 투수 잭 쿠싱으로 대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계 명언은 최근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각 구단 마무리 투수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줄줄이 무너지면서 경기 막판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8일엔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린 5경기가 모두 한 점 차 승부로 끝났다.

이 가운데 4경기는 9회에 접수가 나왔고 3경기는 연장 승부로 이어졌다.

KBO리그가 10구단 체제로 운영된 이후 하루 5경기 모두가 한 점 차 승부로 끝난 것

서 김서현 등이 심각한 제구 문제를 드러내면서 프로야구 역대 한 경기 팀 최다인 18개의 4사구를 허용하기도 했다. 결국 한화는 대체 외국인 투수 잭 쿠싱을 마무리로 돌리는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다.

작년 27세이브를 기록한 KIA 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 역시 시즌 초반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6.88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갔다가 최근 1군에

복귀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최근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올린 롯데 자이언츠 마무리 김원중도 시즌 초반 난조로 마무리 보직에서 물러났다

복귀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최근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올린 롯데 자이언츠 마무리 김원중도 시즌 초반 난조로 마무리 보직에서 물러났다

가운데 28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시즌 첫 세이브를 달성했다.

올 시즌 KBO리그 불펜 투수들의 평균자책점은 4.77로 리그 평균자책점(4.33)보다 훨씬 높다.

지난 시즌엔 불펜 투수 평균자책점이 4.47, 리그 평균자책점은 4.31이었다.

2024시즌에도 불펜 투수 평균자책점(5.16)과 리그 평균자책점(4.91)의 차이가 지금처럼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일각에선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투수들, 특히 불펜 투수들이 예년보다 빠르게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시즌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

적이나나, 실제로 WBC에 출전한 유영찬과 김택연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정우주(한화) 등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적이나나, 실제로 WBC에 출전한 유영찬과 김택연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정우주(한화) 등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조병현, 노경은(이상 SSG 랜더스), 박영현(kt)처럼 WBC에 출전하고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는 투수들도 많다.

이 때문에 WBC 출전과 부진의 상관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글:사단-연합뉴스

## 아들은 단장, 아버지는 감독... MLB 첫 사례

필라델피아, 10연패 톰슨 감독 경질  
양키스 감독 지낸 매팅리 코치, 대형 임명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역사상 처음으로 아들이 단장, 아버지가 감독을 맡는 사례가 나왔다.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은 28일(현지 시간) 립 톰슨 감독을 경질하고 돈 매팅리(65) 벤치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매팅리 대행의 아들인 프레스턴 매팅리(38)는 필라델피아의 단장을 맡고 있어, 아들이 아버지의 상사가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USA투데이는 “매팅리는 아들의 지휘 아래 일하게 됐다”며 “MLB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매팅리 대행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뉴욕 양키스의 간판타자로 활약한 스타

선수 출신이다. 은퇴 후 양키스에서 타격 코치, 벤치 코치를 지냈고 이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타격코치를 거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저스 감독을 맡았다.

당시 매팅리 대행은 류현진(현 한화 이글스)의 MLB 안착을 도왔다. 이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마이애미 말린스 감독을 지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토론토 블루제이스 벤치 코치로 활동했다.

필라델피아에는 올해 벤치 코치로 부임했다. 벤치 코치는 단장보다 감독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부자가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개막 약 한 달 만에 감독대행 중책을 맡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매팅리 대행의 아들인 프레스턴 매팅리 단장의 커리어는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돈 매팅리(왼쪽) 감독 대행과 아들 프레스턴 매팅리, 연합뉴스

정도로 짧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야구 선수의 길을 걸었으나 마이너리그에서만 뛰다가 2011년 은퇴했다. 이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스카우트로 프런트 생활을 시작했고 2023년 필라델피아 부단장, 2024년 단장으로 고승진했다.

매팅리 감독 대행은 2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벅크 파크에서 현지 매체들과 만나 아들과 관련한 질문에 “난 아기가 마음에 든다”며 농담한 뒤 “불편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 둘 다 경

기에 이기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과 나는 조금 다르고,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본다”며 “이 점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MLB닷컴은 “단장과 감독은 동료지만 긴장감이 있는 관계”라며 “특히 선수단 내에선 외부는 물론 프런트 조직에도 알려서는 안 될 비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팅리 대행은 올해 벤치 코치로 합류했을 때 클럽하우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던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10연패에 빠지는 등 28일까지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를 기록하면서 9승 19패(승률 0.321)로 지구 공동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에 필라델피아는 감독 경질이라는 강수를 택했다.



## 멕시코 '17세 신성' 모라 월드컵 승선

북중미대회 흥명보호와 대결  
자국리그 소속 정에 12명 확정

흥명보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상대인 공동 개최국 멕시코가 월드컵에 대비해 최종 소집 훈련에 나설 자국리그 소속 정에 선수 12명을 확정했다.

멕시코축구협회는 29일(한국 시간) 5월6일부터 시작될 훈련 캠프에 참가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소집하는 선수는 멕시코 프로리그(리가 MX) 소속 12명이다.

이번에 소집하는 선수는 멕시코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 최종 명단에 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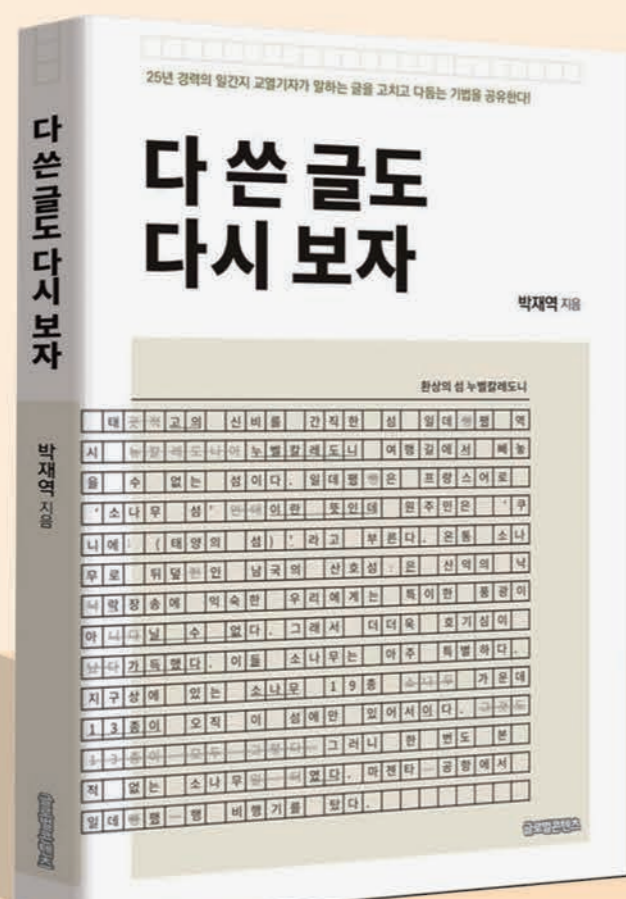
아울러 이번 훈련 캠프는 리가 MX 구단들의 협조로 약 5주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해외와 선수들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회 규정에 따라 최종 명단 26명은 개막 열흘 전인 6월1일까지 FIFA에 제출하면 된다.

아기에 감독은 유럽과 선수들이 합류하는 5월 말 전까지 훈련을 위해 추가로 8명의 선수도 소집했다.

이번에 선발된 12명에는 골키퍼 라울 라헬(치바스)을 비롯해 수비수 이스라엘 레예스(아메리카)와 헤수스 가르시아(톨루카), 미드필더 루이스 로모(치바스), 에릭 리라(크루스 아술), 브리안 구티에레스(치바스), 공격수 아르만도 곤살레스(치바스)와 알렉시스 베가(톨루카) 등이 들어있다. 특히

만 17세의 초신성 질베르토 모라(티후아나)가 눈에 띈다. 모라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 모두 소화할 수 있다.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박재역 지음

박재역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벌콘텐츠

##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